

다품종 소량생산 징후 뚜렷

출협, 98년도 출판통계 ... 신간 3만6960종 출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평균 발행 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1997년
총 류	449	301	1,583,315	523,291	3526	1,738	27,399	20,887	357	349
철 학	898	733	2,076,520	2,692,690	2312	3,673	10,487	10,099	242	311
종 교	1,837	1,768	4,758,070	4,972,218	2590	2,812	8,132	8,794	293	314
사회과학	5,001	4,268	72,315,516	74,117,846	14460	17,365	14,980	13,340	393	383
순수과학	524	381	994,110	809,150	1897	2,123	15,125	12,509	319	349
기술과학	4,110	3,581	5,069,238	4,879,750	1233	1,362	16,751	14,977	406	399
예 술	1,341	1,200	2,253,868	2,847,917	1681	2,373	14,609	13,700	210	195
어 학	1,488	1,448	4,606,028	5,731,066	3095	3,957	12,580	10,977	287	300
문 학	5,034	4,440	12,350,815	13,610,416	2453	3,065	7,340	6,720	276	283
역 사	1,137	1,015	2,101,538	1,985,625	1848	1,956	11,497	10,941	361	344
학습참고	3,155	3,640	38,901,046	60,149,260	12330	16,524	10,032	13,397	171	174
아 동	3,864	4,538	10,500,300	16,388,650	2717	3,611	8,108	8,069	93	90
계	28,838	27,313	157,510,364	188,707,879	5462	6,909	11,778	11,102	282	271
만 화	8,122	6,297	33,025,623	23,605,460	4066	3,748	3,278	3,122	160	168
총 계	36,960	33,610	190,535,987	212,313,339	5155	6,316	9,910	9,607	255	252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최근 98년도 출판통계를 집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간은 3만6960종, 1억9053만5987부를 발행, 하루 평균 101종, 52만여부의 책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에 비해 종수는

10% 늘고 부수는 감소, 다품종 소량생산의 뚜렷한 징후를 보이는 것. 철학과 예술·역사부분의 책은 적게 나온 반면 학습참고서, 만화는 여전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출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참고서와 아

동도서 역시 지난해 1/3 이상 줄어들어 위축된 가계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만화는 97년 2천만부를 넘어선 지 1년만에 3천만부가 넘게 발행해 만화독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제39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시상

저작상에 고동환·이승환·이삼성씨 외



고동환씨.



이승환씨.



이삼성씨.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제39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오는 2월 9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저작상 인문부분에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

구》(지식산업사)를 쓴 고동환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고려대출판부)을 쓴 이승환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공동수상

하며, 시사·교양부분에 《21세기의 문명과 야만》(한길사)을 쓴 이삼성 교수(가톨릭대 국제학부)가 선정됐다. 고동환의 저작은 경강지역의 도시사적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승환의 저작은 유가사상을 사회비판이론으로 해석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이삼성의 저서는 새로운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교양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판상의 13개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사전 《연세국어사전》(두산동아) ▲문고 《문지스펙트럼》(문학과지성사) ▲전집 《프로이트 전집》(열린책들) ▲기획 《서원》(열화당) ▲편집 《진경시대》(돌베개) ▲자료정리 《독도 지리상의 재발

견》(삼인) ▲번역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푸른숲) ▲어린이 《빠아제 자연과학동화》(한국빠아제) ▲사진 《윤주영·어머니의 세월》(눈빛) ▲예술 《음악이 있는 풍경》(이론과실천) ▲장정 《레오나르도 다 빈치》(한길사) ▲제작 《웅진학습백과》(웅진출판사) ▲CD롬책 《한국동식물도감 CD롬 타이틀》(아카데미서적).

영진 컴퓨터 꿈나무 장학회 발족

(주)영진출판사(대표 이문철)가 '할 수 있다 컴퓨터 꿈나무 장학회'를 지난달 30일 발족, 1차 장학생인 두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장학회는 컴퓨터 저자인 텔런트 강남길씨가 기부한 1천만원과 자사의 1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본기금으로 출발, <할 수 있다> 시리즈 한권당 1백원씩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예정.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에 두번 장학금과 관련 교재를 무상제공받는다.

독서지도교사 세미나 개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지난 1월 22일부터 2

일간 대전에서 "청소년 독서지도 이렇게 하자"는 주제로 제4회 독서지도교사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현 이화여대 교수의 기초연설과 조성식(광주교 교사), 이은선(인천 부광초등교 교사), 황성식(경남 산천초등교 교사)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독서지도 사례를 발표했다.

한·중 출판학술회의 개최

(사)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는 지난 1월 14일부터 5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3회 한·중출판학술회의에 참가했다. 대표단장인 이종국(혜원대) 교수가 <한국의 출판현상에 대한 일고찰>을 발표 한데 이어 김병준(지경사 대표)씨가 <한국에서의 청소년 도서개발과 출판문화>, 김기태(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씨가 <한국에 있어 WTO가입 전후의 출판상황에 관한 연구>, 김재운(한국출판연구소 연구부장)씨가 <한국 출판연구단체의 현황과 과제> 등을 각각 발표했다.

출판평론가 김기태씨 출판평론집 출간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이자 혜천대 출판학과 겸임교수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출판평론가 김기태씨가 출판평론집 《책: 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이체)을 펴냈다. 이 책은 책과 책 만드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섬세한 비평가의 눈으로 관찰한 기록이다.

제1부 '책, 글, 출판의 이해'에서는 베스트셀러, 저작권, 출판경향 등 국내 출판현상을 분석했고 제2부 '출판의 자유와 한계'에서는 언론과 출판문제를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출판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저작권 문제를 정리한 제3부 '출판과 저작권', 출판계를 향한 과제와 전망



저 있다.

이 책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관행이 남아 있는 출판계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국내 출판의 과학화·선진화를 향한 저자의 뜨거운 애정과 연구의 결실이 담겨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은은한 향기를 전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인 모두 힘써야 한다는 논지가 저자의 일관된 출판정신을 요약한다. ◆